

## 애월 상가리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논란

한화그룹, 중산간 123만㎡ 부지에 숙박·휴양시설 추진  
26일 제주도시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불구하고 대규모 취수 계획

한화그룹이 해발 400m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한라홀에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열고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화그룹 계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호텔)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애월읍 상가리 일원 목장과 일대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부지면적은 123만1400여㎡, 건축면적은 14만4000㎡다.

제주도는 이날 수렴한 자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보가 사업계획을 입수해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향후 본격적

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 시 보존관리지역은 전체 사업 부지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

만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 19% 정도가 보존관리지역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 특혜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월읍 지역은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타 지역보다 높게 검출되는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함양량 증대를 위해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하수 함양에 영

향을 주는 대형 송골 지형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애월읍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애월읍 중산간 지역에는 대규모 지하수 신규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인가 부담금을 통한 지하수 개발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초원 질주하는 제주마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열린 27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에서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마를 초원에 방목하는 장면이 재연돼 제주마가 힘차게 질주하는 모습을 도민과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코로나19 위기단계 5월부터 '경계→관심'으로 하향

격리 기준 인플루엔자 수준  
병원과 취약시설 입소자  
마스크·선제검사도 권고로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3단계)에서 관심단계(1단계)로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위기단계를 하향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방역조치는 일부 의무 방역조치를 모두 권고로 바꾸고 자율적 방역실천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기준은 현행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

시간'으로 권고하고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폐지되며 60세 이상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환자실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기존 6000~9000원대로 지

원한다.

입원치료비에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고, 중증 입원환자 치료비 일부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먹는 치료제는 전 국민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제31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최우수상

4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정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시상일자 및 장소

▶2024년 6월 24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5월 17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is1006@ihalla.co.kr)로 접수

▶한라일보 비즈니스 1국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1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기동

그날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 제주대 의대 정원 70명으로 확정

현 정원 40명에서 30명 늘려  
당초 증원 60명의 50% 줄여

제주대학교가 정부가 기존에 배정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50%만 모집하기로 선발 규모를 축소 조정했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증원분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대는 증원분을 반영해 마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달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정원 총 100명으로 배분했다. 이는 기존 정원 40명 대비 60명이

증원된 것이고, 제주대가 당초 교육부에 신청한 증원분이기도 하다.

정원 발표 이후 의료 공백 사태가 악화되자, 제주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며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 대학은 내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제주대학교는 증원받은 정원을 50% 줄이기로 방침을 굳혔다. 기존 증원 인원 60명에서 절반을 줄여 30명만 증원해, 총 정원 7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발 규모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LIVELY REST

생동감 넘치는 휴식, 휘닉스 아일랜드

천혜의 자연경관 설치코자를 누리고

성산일출봉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하며

노란빛으로 물드는 산책로를 걷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지상낙원,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지코지 107 963642

예약예약 | 1577 0069(ARS1번) 홈페이지 | www.phoenixhnr.co.kr

phoenix  
ISLAND

